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사순시기를
냉이국에 비한다면
무례한 것일까.
혀에 그득한
쌈싸름하고도 달콤한 그 맛을.
사순의 눈물처럼
쓰고도 달큰한 참회의 맛을.



[제 1독서] 2역대 36, 14-16. 19-23
[화답송] 시편 137(136), 1-2. 3. 4-5. 6(◎ 6-8)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바빌론 강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 2독서] 에페 2, 4-10
[복음 환호송] 요한 3, 16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요한 3, 14-21

성가	8시 미사	입당 421	봉헌 218	성체 160 168	파견 280
	11시 미사	입당 421	봉헌 218	성체 160 168	파견 280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 4주일(3월 15일)		사순 제 5주일(3월 22일)		주님수난성지주일(3월 29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애리 스텔라	3구역:김미숙 말가리다	정일환 프란치스코	4구역:이자영 엘리사벳	채성일 토마스	뜨락:전진영 베로니카
제 1 독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3구역:최윤기 유스티노	채성일 토마스	4구역:김민규 바오로	강신호 요한	뜨락:이의천 베드로
제 2 독서	정영희 글라라	3구역:이혜경 레아	정애리 스텔라	4구역:윤윤선 루시아	김영선 안젤라	뜨락:문지영 골롬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수난복음					최환준 베네딕토	뜨락:박보라 올리안나
					정애리 스텔라	뜨락:권창모 미카엘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서성동에는 높이 12m, 둘레 10.8m의 기념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탑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당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실행하자, 이에 분개한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고 이를 기리고자 1962년 9월 20일에 건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탑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아마도 3·15 부정선거를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땅에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기억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배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기억 안에서 배우며 살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인도 이와 같다 생각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기쁨 13항)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신앙 역시 기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랑을, 가르침을 말씀과 전례 안에서 기억하며, 이를 통해 복음과 진리를 배우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기억과 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요한 3,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이유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민수 21, 8-9)임을 기억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왜 들어 올려져야 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와 하느님께 “당신들은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

오.” (민수 21, 4)라고 불평하며 죄를 짓자, 그들에게 불 뱀이라 상징되는 죽음의 벌이 찾아왔고, 그 벌로부터의 해방이 구리 뱀의 들어 올림을 기억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짐이 결국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임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순 제4주일을 맞이하며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위한 여정임을,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 하는 것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글을 접으면서 이제 한 달 후면 만 1년이 되는 2014년 4월 16일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295명 사망, 9명 실종이라는 큰 아픔을 기억하며,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무능함이 결국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슬픔을 남겼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을 향한 생활의 변화가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기도와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의 영화는 미완성입니다. 사순시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출연 영화를 완성하고 변화시켜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이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찾고 따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양주용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은수 본당 주임

생명의 말씀

래따레(Laetare)

1. “바빌론 유배에서 예루살렘으로” (2역대 36,19-23 참조)
오늘 화답송은 “바빌론 강기슭 거기에 앉아” (시편 137,1)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른바 ‘모세의 구리뿔’ (민수 21,4-9 참조)을 통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 충실하며 살도록 이끌어 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갖 역겨운 짓으로 주님을 크게 배신하며 살게 되었고, 결국 바빌론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생활 중에 ‘바빌론 강기슭’은 주님 체험의 기억을 통한 ‘회심의 자리’였습니다. 그 ‘기억과 회심’에 신실하신 주님께서서는 ‘키루스의 칙령’ (2역대 36,22-23 참조)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향케 하셨습니다.

2. “죽음에서 구원으로” (에페 2,4-7 참조)
가끔 10년이 넘도록 쉬던 교우들이 고백성사 도중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눈물은 자신들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 다시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총의 체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개가 “주님께 다시 의탁해 보려고 왔습니다.”라는 말로써 조심스레 자신들의 희망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인간은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 없이 살게 됩니다.”(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23항)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3. “누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요한 3,14-16 참조)
올해 서품된 홍성원 신부님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요한 3,8)를 서품 성구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뜻에 의탁하며 사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니코데모도 늘 그와 같은 열망을 품고 살았던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갈망을 들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고, 마침내 ‘밤’을 몰아내 버리는 ‘빛’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니코데모와 같은 ‘참된 열망과 빛을 향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사순 제4주일은 래따레(Laetare) 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래따레’는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하고 외치는 라틴어 입당송의 첫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때문에 오늘 전례는 부활의 서광을 목전에 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

리’ (요한 3,14 참조)를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빛을 향해’ (요한 3,21참조) 곳곳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드리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여라, 이렇게 되는 백성! 즐거워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시편 144,15 참조)

정연정신부
절두산순교성지주임



치유된 사람의 믿음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억누르려는 사람들과
충돌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교황청전교기구 한국지부, 2011 사순묵상에서-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아베 마리아

저는 음대 교수이면서 연주자도 아니고 작곡가도 아닙니다. 보통 저와 같은 사람을 음악학자라고 합니다. 음악연구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음악학자들의 존재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없으면 음악에 대한 연구는 무조건 수 입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에 국내의 음악학자 5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서양 음악의 역사를 우리말로 집필한 대학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음악사는 외국의 교과서를 번역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는 서양 음악 역사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중세 음악 집필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세 음악이라면 보통 300~400년부터 1400년 경까지의, 약 1000년 동안의 음악을 말합니다.

중세 음악의 90퍼센트는 성악 음악이고 남아있는 성악 음악의 약 70퍼센트는 종교 음악입니다. 중세유럽의 종교 음악이니 당연히 가톨릭 음악입니다. 중세 음악의 시작이며 서양 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대표적인 중세 음악입니다.

대학자이며 성인인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이름을 딴 성가는 800~900년경부터 악보로 전해오면서 그 이후 약 500년 이상 유럽 종교음악의 원천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세례명을 그레고리오로 정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성가들 중에 성모 마리아와 연관된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 신자들이 듣기에 화음도 없는 선율로 노래하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그레고리오 성가 중에서도 성모 마리아 곡들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성모 공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 새롭게 작곡된 성모 마리아 음악이 넘쳐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베 마리아’입니다.

우리의 기도문 ‘성모송’의 전반부가 그 가사의 일부입니다.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로 시작

하는 라틴어의 어순대로 옮기면 “기뻐하소서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이 됩니다.

‘아베 마리아’는 아니지만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아름다운 그레고리오 성가는 인터넷으로 ‘Gregorian Chant Salve Regina’로 검색하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묵주기도 끝에 바치는 ‘성모찬송’입니다.

우리가 주로 듣는 1700년 이후의 음악에는 비교적 적은 양을 차지해서 잊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성악음악은 가톨릭 종교 음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음악에도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처럼 뛰어난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비하면 듣는 것이 더 많은 어려움을 주는 관계로 화가들처럼 이들이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음악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음악은 다빈치의 그림에 뒤지지 않는 명품들입니다. 인터넷에 ‘Josquin Ave Maria’로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허영한 요셉
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

예레미야 예언자

성경산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여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키루스는 바빌론에 유배를 온 이스라엘백성들에게 귀환을 허락합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역대36,14-23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그 역시 다른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황하여 도망치려 하고, 심지어 말을 잘 못한다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예레1,1-19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한 당시 사회는 암흑과도 같은 시대였고, 특히 백성들의 생활은 몹시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종교도 썩을 대로 썩어 일반 백성들의 고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모든 분야가 부패하고 썩은 상태였기에 멸망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소명은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예레11,1-23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예레미야도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비난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심심찮게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너무 억울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동족들에게 박해받고,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외면당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예레20,7-18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하필 내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을 할 때 고통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을 통해 참 예언자로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을 통해 완전함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허영엽 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그들 앞에서 () 마라.
내가 너와 ()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에 내()을 담아준다.”(예레1,8-9)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맞서 내가 너를 요새의 ()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너를 이겨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 너를 ()하고 ()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15,20)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3월 15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신마태오(현규)	윤사비나
	연	권데레사	윤사비나
	연	이스테파노(상준)	뜨락회
	연	한다윗(홍석)	김다윗/유릿다
	연	김클레멘스(진철)	노소피아
	연	최요한(응수)	최스테파노(상철)
	연	이마리아(부자)	김데레사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박현민	김데레사
	생	유데레사	3구역일동
	생	서데레사	3구역일동
	생	심데레사	3구역일동
	생	조엘리사벳	3구역일동
	생	3구역원	서데레사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조분도(관식)	익명
	생	전데레사(숙희)	이베로니카
	생	조요셉(승구)	조데레사
	생	조베드로(찬구)	조데레사
	생	조야고보	조데레사
	생	김다윗/다니엘	김데레사
3월 17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박까리타스(남숙)	신나탈리
	생	김베드로(주용)	신나탈리
3월 19일 목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이베로니카(경란)
	연	이스테파노(상준)	정요한/가브리엘라
	생	김요셉(태웅)	김아네스(순이)
	생	이요셉(건용)	육아오스딩
	생	한요셉(치용)	육아오스딩
	생	부요셉가정	부필로메나
	생	유요셉	성루카
	생	허요셉(동원)	김카타리나
3월 21일 토	연	제일버림받은영혼	김카타리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77	204	18	299
헌 금	\$480	\$1,002	\$36	\$1,518

< 교무금 > \$2,310

김영민(2) 서춘애(2) 임승원(1-3) 김순이(3)
 조우송(4) 최상철(3) 남금지(3) 유혜선(3)
 한서연(3-4) 김승희(3-4) 조관식(3) 이완수(3-4)
 최순일(2) 조진행(3) 김현수(3) 최윤기(3)
 이명란(3) 김정복(3) 이선희(3) 박일신(3)
 이종주(1-3) 조승구(3-4) 이순자(1-2) 김옥녀(3)

< 성소후원금 > \$280

서춘애(2) 김순이(3) 김승희(1-6) 조진행(3)
 최윤기(3) 이명란(3) 김정복(3) 이선희(3)
 박일신(3)

< Bishop's Appeal > \$230

김영민(2) 서춘애(3-4) 유혜선(3) 김승희(1-6)
 조진행(3) 최윤기(3)

< 감사헌금 >

최옥경 \$50 조승구 \$100

< 부활초/꽃봉헌 >

김순이 \$100 양우선 \$100

~~~~ 오늘 간식은 성태성 루카/우술라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성유축성미사

3월 26일(목) 저녁 6시 반 오클랜드 주교좌 성당  
 \* 본당 전례성가대가 미사 전 성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 26일 목요일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 2차 헌금

3월 15일(오늘) : Catholic Relief Services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합동판공성사 : 3월 27일(금) 저녁 미사 후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견진교리 안내(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일시 : 3월 15일, 3월 22일  
 4월 12일, 4월 19일 오후 1시 반 ~ 2시 반  
 장소 : 성당 \* 준비물 : 성경  
 지도 : 조마오로 수녀님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화요일/문의 510-847-3014  
 \* 대건회 : 3월 15일(오늘) 교중미사 후 202호실

◆ 성모회 총회

3월 15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45세 ~ 65세의 모든 자매님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3월 22일(다음주) 점심식사 후 성당

◆ 본당 웹사이트에 교우이야기란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동안 김관숙 크리스티나, 이경란 베로니카, 김세록 제랄드, 이윤지 소피아, 허은희 마리아, 강효원 그레이스 교우분들의 다양한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강시구 안드레아(벼룩시장), 이성재 베드로(Brown Bag), 정일환 프란치스코(절수) 교우분들의 글이 실릴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 [www.oakcc.org](http://www.oakcc.org)

3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오클랜드반    | 3월29일(일)5시   | 채성일토마스덕   |
|    | 알라메다 S/N | 3월21일(토)6:30 | 정병구베드로덕   |
|    | 샌리엔드로 E  | 3월21일(토)6:30 | 김영길스테파노덕  |
|    | 샌리엔드로 W  | 3월21일(토)6시   | 원광희프란치스코덕 |
| 3  | 리치몬드/버클리 | 3월28일(토)5시   | 김원조도미니코덕  |
| 4  | 월넛크릭     | 3월22일미사후     | 대건회관      |
|    | 콩코드      | 3월28일(토)7:30 | 양우선요한덕    |

◆ 대건산악회 전신자 초청 특별산행 안내

\* 360도 파노라마 전망, 수 백마일 멀리 경치를 볼 수 있는 Mt. Diablo 정상에 올라갑니다.  
 1) 1.5마일, 2) 4마일, 3) 6마일 코스로 나누어 전신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3월 24일(화) 8:00AM 성당 주차장 집합  
 \* 지참물 : 참가비 \$10, 점심, 음료수, 등산 필수품 각자 지참  
 \* 문의: 510-847-3014

◆ 북가주 26차 ME 첫주말 초대

일시 : 2015년 4월 10일 - 4월 12일  
 장소 : Vallombrosa Retreat Center, Menlo Park  
 참가비 : 부부당 \$ 300.00  
 연락처 : 한치용 요셉 415-810-3175  
 한현자 헬레나 925-285-2038

◆ 전례성가대에서 반주자를 구합니다.

문의 : 이경란 베로니카 510-688-0155

◆ 성물방 Sale

사순시기 동안 도서/성물을 20% Sale 합니다.(초 제외)

◆ 연도 안내

고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의 1주기 연도가 3월 19일(목) 저녁 미사 후 있습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마트로나(3/15) : 이은자  
 \* 요셉(3/19) : 조승구, 김정탁, 허동원, 김청남, 이병열, 조정학, 김덕명, 송호일, 허종원, 이경섭, 최요셉, 최순일, 부건화, 이건용, 한치용, 주봉진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 오후 12시 30분